

성관음좌상

자비를 상징하는 부처님인 관음은 연민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관음은 다양한 형태로 현세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성관음은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관음은 일반적으로 왼손에 꽃잎이 살짝 열린 연꽃 봉오리를 쥐고 있습니다. 연꽃은 순수함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연꽃의 뿌리는 더러운 물속에서 성장하는데, 꽃은 물 위에서 개화합니다. 오른손 모양은 연꽃 봉오리의 개화를 암시합니다.

높이 321cm의 성관음보살상은 녹나무로 조각되었습니다. 부드러운 형태와 온화한 자세는 헤이안 시대(794-1185) 후기의 전형적인 작품을 보여줍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조각상은 간제온지 사원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던 1064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불상 조각의 양식과 신체 부분을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불상 제작 기술(요세기즈쿠리)의 구조를 살펴봐도 제작 연대는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상 앞에 놓인 새전함이 보물고 내 어느 불상보다도 큰 이유는 성관음을 간제온지 사원의 본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